인공지능 학습 결과서

1. 베이스라인 모델 선정

비교결과

2. 1차 한국어 context q&a 튜닝

튜닝과정

LoRA config

튜닝 프롬프트

Trainer config

학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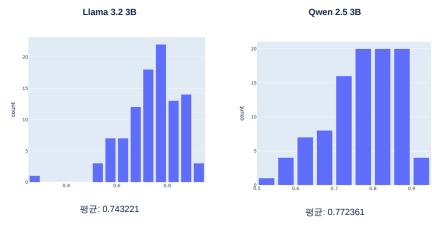
inference 결과

1. 베이스라인 모델 선정 ⊘

- Base 모델: Ilama 3.2 3B
- 모델 선정 이유
 - 주어진 리소스와 시간 상황을 고려
 - 학습 환경: Rudpod A100 80G
 - 모델 지원 token limit 고려
 - 데이터의 token이 평균 36k 최대 128k
 - Unsloth 모델들의 token limit는 8k로 제외
 - EXAONE 3.5 2.4B, Gemma2 2B의 token limit는 각각 32k, 8k로 제외
 - 모델간 비교 결과를 통한 선정
 - Ilama 3.2 3B vs qwen 2.5 3B.
 - 비교결과에 따라 llama 3.2 3B 모델 선택.
 - 자세한 비교결과를 참고.

비교결과 🔗

- 비교를 위해 context Q&A 데이터셋을 활용.
- sentence_transformers 를 통해 유사도를 측정.
 - 。 SBERT 기반의 한국어 embedding모델인 jhgan/ko-sroberta-multitask 를 사용.
 - 리더보드에서 자주 사용되는 다국어 모델인 paraphrase-multilingual-MiniLM-L12-v2 에 비해 한국어 벤치마크 스코어가 더 높기 때문에 선택.[출처]



- Qwen2.5 3B 모델의 스코어는 높았지만, 두 모델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지난달 Huggingface의 다운로드 수를 비교했을 때, llama 모델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llama 3.2 3B모델을 사용하기로 결정.

Llama 3.2 3B

Downloads last month
1,241,988

Downloads last month
544,136

Qwen 2.5 3B

2. 1차 한국어 context q&a 튜닝 🔗

튜닝과정 🔗

- 사용 모델
 - o Llama-3.2-3B-Instruct
- 사용데이터
 - HoJL/qa_no7

LoRA config ∂

```
LoraConfig(
r=4, # Low-rank 매트릭스의 차원
lora_alpha=8, # LoRA에서 사용되는 스케일링 계수
lora_dropout=0,
task_type=TaskType.CAUSAL_LM,
target_modules=['q_proj', 'k_proj', 'v_proj', 'o_proj', 'gate_proj', 'up_proj', 'down_proj'], # LoRA 적용할 모듈
)
```

튜닝 프롬프트 ⊘

✔ 프롬프트

```
1 instruction = "너는 주어지는 내용을보고 질문에 답을 하고 왜 이런 답을 했는지 추론도 해주는 역할이야"
2 inputs = f"""
3 ###내용:
4 {row['context']}
```

```
6 ###질문:
7 {row['question']}
8 ""
9
10 answer = f"""
12 {row['answer']}
13 ""
14
15 cot_answer = f"""
17 {row['cot_answer']}
18 """
19
20 messages = [
21 {"role": "system", "content": f"{instruction}"},
22 {"role": "user", "content": f"{inputs}"},
23 {"role": "assistant", "content":f"{answer}"},
24 {"role": "assistant", "content":f"{cot_answer}"}
26 text = tokenizer.apply_chat_template(
27
28
       tokenize=False
29 )
30 text = text.removesuffix('<|eot id|>')
31 text += '<|end_of_text|>'
```

✔ 프롬프트 예시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n\nCutting Knowledge Date: December 2023\nToday Date: 10 Jan 2025\n\nhi는 주어지는 내용을보고 질문에 답을 하고 왜 이런 답을 했는지 추론도 해주는 역할이야<|eot_id|><|start_header_id|>\start_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n\n##\Header_id|\Header_id|>\n\n##\Header_id|\Header_id|\Header_id|>\n\n##\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Header_id|\

<start_header_idl>assistant<lend_header_idl>\n\n###답:\n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법안의 불명확성, 인권 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명확성 원칙의 부실함을 강조하며, 이는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나타낸다.
나타낸다.
나타낸다.
나라는 대접 정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나타낸다.
나라는 제품
지하는 기계

용 등 범죄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로 취급해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법적 시스템 내에서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시효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n3. 현직 부장판사가 지적한\'명확성 원칙\'의 부실함은 법안이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이는 법률이 명확해야만 국민이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다는 원칙에 부합한다.\n4. 이러한 여러 논점을 종합해보면,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현재 법안의 불명확성과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향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end_of_text|>

Trainer config *∂*

```
    trainer config

   1 training_args = SFTConfig(
   per_device_train_batch_size=4,
   3 gradient_accumulation_steps=16,
   4 per_device_eval_batch_size=4,
   5 num_train_epochs = 2,
   6 warmup_steps=10,
   7 eval_strategy="steps",
   8 do_eval=True,
        eval_steps=20,
   9
  10
        save_steps=500,
        learning_rate=2e-5,
  11
  12 logging_steps=20,
  output_dir='./llama3.2_3b_qa_v1',
  14 report to='wandb',
  dataset_text_field='text',
  packing=False,
  17 )
  18 trainer = SFTTrainer(
  peft_config=lora_config,
tokenizer=tc/
  19 model=model,
  22 train_dataset=dataset_train,
  23      eval_dataset=dataset_valid,
  24 args=training_args,
  25 )
```

학습 결과 🔗

inference 결과 ∂